

SK 뒤집다 KS



2018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SK 와이번스 선수들이 12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시상식에서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 내린 2018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5시간 7분간의 혈투 끝에 '가을 잔치'의 주인공이 되면서 숨 가쁘게 달려왔던 KBO리그 2018시즌이 막을 내렸다.

SK는 지난 1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9회초 타진 최정의 동점 홈런과 연장 13회 나온 한동민의 결승 솔로 홈런에 힘입어 5-4로 승리, 4승 2패의 전적으로 시리즈 우승을 확정했다.

13회까지 전개된 승부는 5시간 7분 동안 이어졌다. 두 팀의 에이스 SK 김광현과 두산 린드블럼까지 불펜으로 투입되는 등 총 16명의 투수가 마운드에 오른 대혈투였다.

'홈런 군단'으로 정규시즌 2위에 오른 SK는 가을 무대에서 결정적인 한방을 잇달아 터트리면서 포스트 시즌을 지배했다.

SK, 4승 2패로 두산 꺾고 한국시리즈 챔피언 두산, 14.5게임차 압도적 질주에도 통합우승 실패 KIA, 시즌 초부터 엇박자... 씩씩한 5위 마침표

SK는 1989년 해태 타이거즈(2위), 1992년 롯데 자이언츠, 2001~2015년 두산(이상 3위)에 이어 5번째로 정규시즌 1위를 넘고,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뤘다. 8년 만에 이룬 SK의 4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이다. 이에 함께 힐만 감독은 한국시리즈에서 처음 우승을 지휘한 외국인 감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7개월 동안 KBO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던 두산은 SK의 한방에 무릎을 꿇으면서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머물렀다.

압도적인 정규시즌 질주였기에 두산에는 더 아

쉬운 '통합 우승 실패'다. 일찌감치 1위 독주를 시작한 두산은 93승 51패(승률 0.646)로 정규 시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탔던 KIA 타이거즈와는 무려 23경기차, 2위 SK와도 14.5경기 차가 나는 압도적인 성적이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부터 달궈진 SK의 방방이를 막지 못한 '정규시즌 챔피언' 두산은 2018시즌 마지막 날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밀려났다. 2018시즌은 두산의 거침 없던 정규시즌 독주, SK의 깜짝 한국시리즈 우승과 함께 한화 이글스의

의 반전 그리고 '호랑이 군단'의 추락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하위권 후보'로 꼽혔던 한화는 정규시즌 3위에서 으르면서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을 치렀다.

불펜 힘으로 시즌 초반 반전을 이룬 한화는 토종 선발 부재와 타선 기복이라는 고민 속에서도 3위 자리를 지키면서 모처럼 가을 야구를 즐겼다.

반면 '우승 후보'로 언급된 KIA는 초반부터 엇박자 행보를 이어가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구겼다.

정규시즌 최종전을 하루 앞두고 겨우 5위를 확정하면서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은 했지만, KIA의 가을은 길지 못했다. KIA는 4위팀 넥센 히어로즈와 치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실수 연발 속 승리를 내어주면서 씩씩하게 2018시즌의 마침표를 찍었다.

SK의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2018시즌의 막이 내렸지만 이미 2019시즌은 시작됐다.

각 구단은 일본 오키나와, 미야자키, 장원 등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하며 2018시즌을 돌아보고 새 시즌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령탑의 대이동으로 더욱 분주하게 2019시즌 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즌 막판까지 전개된 KIA와의 5위 싸움에서 패장인 롯데 조원우 감독이 물러났고 양상문 전 LG 단장이 13년 만에 롯데 감독으로 복귀했다. 창단 후 처음 최하위를 기록한 NC는 이동욱 전 수비코치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해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kt는 자진사퇴를 한 김진욱 감독을 대신해 이강철 두산 수석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또 SK도 가정사로 한국을 떠나게 된 '우승 감독' 힐만 감독의 자리에 영경연 단장을 앉히는 등 4개 구단이 새 감독으로 체제를 바꿨다. /김여울 기자 wool@

SK 힐만 감독 후임에 광주일보 출신 염경연

3년 총액 25억원 ... KBO리그 최고

프로야구 SK와이번스가 트레이 힐만 감독의 후임으로 염경연 현 단장을 13일 선임했다.

SK는 두산 베어스를 꺾고 8년 만에 사상 4번째로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지 12시간도 안돼 전격적으로 후임 감독을 발표했다. SK는 제7대 감독으로 염 단장을 선임하고 3년간 계약금 4억원, 연봉 7억원 등 총액 25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연봉 7억원은 KBO리그 감독 연봉 중 최고액이다. 김태형 두산 감독, 김기태 KIA 감독, 류중일 LG 감독, 김경문 전 NC 감독이 종전 최고인 연봉 5억원을 받았다.

SK는 힐만 감독의 연봉이 60만 달러(약 6억

83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염 선임감독의 연봉을 이와 맞추고, 단장으로 팀의 우승을 이끈 우승 프리미엄을 보태 역대 최고 대우라는 선물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

염 감독은 3시즌 만에 사령탑으로 돌아온다. 그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넥센을 이끌며 4년 내리 포스트시즌에 팀을 올렸고, 통산 305승 6무 233패, 승률 0.567을 올렸다.

SK는 염 선임감독이 구단 이해도가 높은 데다 데이터 분석력을 포함한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판단에 따라 힐만 감독의 후임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년간 단장을 지내며 선수 육성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 SK '제2 왕조 시대'를 이끌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염경연 선임감독은 "힐만 감독님이 잘 다진 팀을



말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전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감독으로서 인연고 팀을 맡아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로야구를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주체인 구단, 선수단, 팬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광주일보 출신으로 1991년 인천 연고 팀인 태평양 돌핀스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한 염 감독은 2000년까지 현역으로 활약한 뒤 구단 직원으로 변신했다. 이어 2007년 현대 코치, 2008년 LG 운영팀장, 2010년 LG 코치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SK, 우승 배당금 22억8000만원

플레이오프 수입 104억원... 두산은 22억3천만원

통산 4번째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SK 와이번스가 우승 배당금으로 약 22억8000만원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포스트시즌 16경기 전체 입장 수입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03억7295만9000원이다.

2018 KBO리그 규정에 따르면, KBO 사무국은 포스트시즌 행사 진행과 관련한 제반 비용(약 45%)을 제외하고 포스트시즌 입장 수입을 가을 야구 출전팀에 나눠준다.

비용을 제외하면 약 57억원이 포스트시즌에 출전할 5개 팀에 돌아갈 몫이다.

그에 앞서 정규리그 1위 팀 두산 베어스가 먼저 20%인 11억400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45

억6000만원을 포스트시즌 성적에 따라 5개 팀이 정률 배분받는다.

우승팀인 SK는 50%인 22억8000만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은 24%인 10억9440만원을 받는다. 정규리그 우승 상금을 합하면 22억3000만원으로 SK의 배당금과 비슷하다.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넥센 히어로즈가 14%, 준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 한화 이글스는 9%,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무릎 꿇은 KIA 타이거즈가 3%를 각각 받는다. /연합뉴스

류현진, LA다저스 1년 더 뒀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왼손 투수 류현진(31)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1년 더 뒀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 등 미국 주요 언론은 13일(한국시간) "류현진이 올해 캘리포니아 오피 제의를 받은 7명의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2018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류현진은 2019년 1790만 달러(약 203억6000만원)를 받는 조건으로 다저스에서 1년을 더 뒀다. 이

후 FA를 다시 선언할 수 있다.

2012년 도입된 캘리포니아 오피를 받아들인 류현진이 역대 6번째다. 맷 윌터스(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브렛 앤더슨(다저스), 콜비 라스무스(휴스턴 애스트로스)가 2016년 처음 이를 수용했으며, 제러미 헬러스(필라델피아 필리스)과 닐 워커(피츠버그 파이리츠)는 2017년 잔류를 선언했다.

캘리포니아 오피는 MLB 원소속구단이 FA 자격 요건을 채운 선수에게 리그 고액 연봉자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으로 1년 계약 제안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류현진

日 오타니, 메이저리그 AL 신인상

일본인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4·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생애 단 한 번뿐인 메이저리그 신인상을 받았다.

오타니는 13일(한국시간)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에서 1위 표 30표 중 25표를 얻는 등 총 137표를 획득, 뉴욕 양키스의 내야수 미겔 안두하르(89점), 글레이버 토레스(25점)를 따돌리고 아메리칸리그 신인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에 투타를 겸업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6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손

상이 밝혀져 9월 이후로는 타자에 전념했지만, 투수로는 10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 2패,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했다.

타자로는 104경기에서 타율 0.285, 22홈런, 61타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925를 올렸다. 같은 시즌에 타자로 15홈런, 투수로 50탈삼진을 기록한 선수는 오타니가 최초다.

4월 26일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아쿠나는 올 시즌 11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3, 26홈런, 64타점, 16도루, OPS 0.917을 기록했다. /연합뉴스